

AI 실증도시 광주서 ‘AI팹리스 컨퍼런스’ 열린다

광주시, 12일 GCC서 ‘AI팹리스 클러스터 조성’과 미래발전 전략’ 논의
국내외 유망 팹리스기업·AI전문가 100여명 참석... AI현장 목소리 청취
팹리스기업 7개사와 업무협약·팹리스 2호 에임퓨처 광주법인 개소식도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에서 국내 외 유망 팹리스 기업과 AI 전문가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 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2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3층 MX스튜디오에서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실증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AI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의 ‘AI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의 ‘광주 AI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강현서 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은 “인

공지능 확산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 하는 상황에서 팹리스의 집적과 협력이 가능한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다”며 온 디바이스 AI의 중요성과 팹리스 클러스터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를 위한 광주시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에이디테크놀로지 박준규 대표이사, 팹리스 기업인 ㈜모빌리티 신동주 대표이사와 ㈜덱스 김정옥 부사장, IP맨더 기업인 ㈜에임퓨처 김창수 대표이사와 배리실리콘 오유섭 한국지사가 참석해 ‘광주 팹리스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논의한다.
최태도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광주는 기술 기반 산업도시로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기업들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AI 팹리스 클러스터 허브 인 광주, 얼라이언스 플로키움’ 행사도 연다. 이 행사는 광주시, 한국팹리스 산업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 인공지능융합사업단, ETRI 호남권연구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주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 유치 팹리스 2호 기업인 ㈜에임퓨처 광주법인의 개소를 축하하고, 광주가 AI팹리스 클러스터 허브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어낼 핵심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시와 국내외 유망 팹리스기업 7개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팹리스기업은 ㈜에이브글로벌, ㈜나노링크 테크놀로지, ㈜보스반도체, 배리실리콘 코리아, 텍스토렌트 코리아, ㈜비트리, ㈜잇다반도체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의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기술 개발과 사



업화를 추진하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길 기자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울촌산단 내 포스코퓨처엠 전구체 공장 준공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로 밸류체인 완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제청)은 6월 10일 광양만권 울촌1산업단지에서 포스코퓨처엠의 연산 4만 5천 톤 규모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과 사업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공장은 약 2.2만㎡(약 6,800평) 부지에 조성됐으며,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구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 전구체를 국산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물론,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완성에 한 축을 더하게 됐다.
/신선호 기자

포스코퓨처엠은 앞서 울촌산단 내 양극재 공장을 가동 중이며, 이번 전구체 공장까지 갖추므로 그룹 차원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배터리 소재의 공급망을 갖추게 됐다.
특히 물류 및 유틸리티 인프라가 집적된 울촌산단의 입지 장점 덕분에 생산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포스코퓨처엠 전구체 공장 준공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이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포스코퓨처엠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선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나주혁신도시내 공공혁신기관 및 기업 등 22개 기관, 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60여곳이 참여한다.
매칭데이 현장에서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1대 1 맞춤형 구매상담이 진행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과 한국사회적

광주시,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매칭데이 연다

11일 시청 시민홀서... 공공기관 22곳·기업 60여개사 참여
1대1 맞춤형 구매상담·전시회 병행... 공공시장 진입 촉진

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같이 가지 UP 프로젝트’ 상품 품평회도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담 ▲인증 및 각종 지원사업 안내 ▲공공조달 진출 전략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시상담 부스를 운영,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설명한다.
이제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매칭데이는 지역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직접 만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

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우선구매 제도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회’를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구매 연계를 일상화하고,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이나 광주사회



적경제지원센터 기업성장팀(062-531-66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김 등 해조류 안전성 강화로 세계시장 공략

올 4월까지 김 수출 1억4천만달러... 미국·중국·유럽서 인기
중금속·미생물·방사능 등 검사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전라남도가 김을 포함한 해조류 수출 품목의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식품 안전기준 강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김 등 해조류 수출업체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는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전남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바이어,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목표다.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나 국제공인 시험기관(KOLAS)에서 시행되며, 중금속, 미생물, 방사능, 인공감미료 등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전남지역 김 수출은 올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1억 4천1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1% 늘었다. 이는 전

남 김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중국(2천998만 달러·82.3% 증가), 미국(3천845만 달러·35.2% 증가)이 수출 확대를 주도했으며, 베트남(63.1% 증가), 독일(101.4% 증가)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전남 김 수요가 크게 늘었다. 또한 일본(2.8% 증가), 폴란드(8.2% 증가), 네덜란드(23.0% 증가) 등에서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김 등 해조류는 수산물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핵심 품목으로, 특히 조미김과 마른김 등 가공도가 높은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품질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성 입증 이 필수이므로, 검사비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전라남도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도모,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일 현재 임신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이다.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사업 신청은 임신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전남도, 임신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읍면동서 접수해 연간 48만원...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나 임신확인서,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영유아 양육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http://jnmall.kr)의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